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도쿄해상HD, 사우디아라비아에 생·손보 합작사 설립

□ 도쿄해상홀딩스는 최근 일본 보험회사로는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생·손보 겸영 보험회사를 설립해 이르면 올해부터 영업을 개시한다고 발표함.

- 도쿄해상홀딩스는 중동 최대의 이슬람 은행이자 사우디아라비아 국책은행인 알인마(AI inma)은행과 공동으로 일본 보험업계 최초 생·손보 겸영 보험회사인 ‘도쿄해상사우디(가칭)’를 설립해 이르면 올해부터 영업을 개시하기로 함.
- 자본금 50억엔으로 설립될 예정인 신설 보험회사는 도쿄해상홀딩스와 알인마은행이 각각 28.75%,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기업 사빅(SABIC)이 12.5%의 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 30% 지분은 주식시장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짐.

□ 도쿄해상홀딩스는 신설 보험회사를 통해 중동에 진출한 일본기업 뿐만 아니라 알인마 은행의 무슬림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슬람 보험인 타카풀 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음.

- 이번 신설 보험회사는 사우디 공제 및 보험감독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 생·보 통틀어 일본 유일의 보험회사로, 우선 석유 및 화학공장 관련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각종 기업성 보험상품을 판매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.
- 그러나 업계에서는 파트너사인 알인마은행이 이슬람보험인 타카풀(Takaful) 상품 판매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합작 보험회사 설립이 도쿄해상홀딩스의 타카풀 사업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하고 있음.
- 도쿄해상홀딩스는 UAE 두바이에 타카풀 사업 관련 시장조사 및 상품개발을 전담하는 전략본부를 두고 이미 사우디아라비아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이집트 등 주요 이슬람 4개국에 타카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, 특히 싱가포르에는 재보험회사 성격의 리타카풀회사를 운영하는 등 이슬람 지역 외 보험회사로는 선도적으로 타카풀시장에 진출하고 있음.

* 타카풀 및 도쿄해상홀딩스의 타카풀시장 진출 사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‘이슬람 보험시장 진출 방안’(2009)을 참조

(신일본보험신문, 4/7)